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07
2022
제 484호



청정고창

발행처 고창군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전화 063.560.2327

FAX 063.560.2259 홈페이지 <http://www.gochang.go.kr>

고창군에서 매월 발행하는 군정 소식지로 누구나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구독을 원하지 않으시면 연락 주세요. (063.560.2327)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이젠 스마트폰에서 보세요. (고창군 스마트알리미 어플 무료로 다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군민과 함께, 더 좋은 고창으로!”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제48대 고창군수 인사 올립니다.

얼마전까진 가뭄으로 애태웠는데, 이젠 폭염과 폭우로 아버님 주름이 늘어납니다.
무섭게 오르는 식탁물가에 장보러 나선 어머님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의 과정일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과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
우리의 아들, 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한낮의 무더위 속에서 느끼는 한 줌의 바람처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전하는 그런 군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서는 새로운 고창을 위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고창시대! 함께 열어 가십시오, 여러분!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고창은 이제 희망의 도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8기 고창군수 올림.

7월1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민선8기 제48대 고창군수 취임식이 열렸다.

‘고인돌 농악단’, ‘모양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문을 연 취임식에선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넘치는 고창을 위한 비전제시와 함께 ‘군민들이 바라는 고창’ 영상이 상영됐다. 고창군수는 “군민과 함께하는, 군민행복을 최우선하는 합리적인 군정을 운영하겠다”며 “군민들이 고창군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활력넘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자! 바다로...더워 잡으러 '퐁덩!' 올 여름 휴가는 구시포·동호 해수욕장에서!

무더운 여름 내리쬐는 태양빛을 피해 지친 몸과 마음을 자연 속에서 달래고 싶다면 청정 고창의 구시포·동호해수욕장으로 달려가자. 고창군 상하면의 구시포해수욕장은 고운모래가 십리에 걸쳐 펼쳐지고 송림이 우거져 오토캠핑과 가족단위 캠핑장으로 제격이다. 주변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와인글라스(wineglass) 형태의 구시포항이 개발돼 멋진 등대와 함께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해리면 동호해수욕장은 완만한 경사의 모래사장과 갯벌이 어우러져 얇은 수심으로 어린이도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백사장 뒤쪽으로 가지런히 서있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그늘을 만들고 한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다. 동호해수욕장 옆 하전어촌체험마을의 갯벌체험도 빼놓을 수 없다. 물이 빠지면 1km이상 드러나는 널찍한 갯벌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바지락·동죽 등 조개류와 돌게·고등 등을 채취할 수 있다. 모래와 펄이 섞인 갯벌이어서 발이 잘 빠지지 않아 어린이를 포함한 온가족이 어렵지 않게 조개류 채취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고창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각종 시설물을 정비해 불편함이 없는 여름 힐링 공간으로서 손님맞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

제19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복분자와 수박 농산물 판매 4억4500만원, 전국에서 14만명 방문



‘제19회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사흘간(6월17~19일) 군민과 관광객 등 모두 14만 여명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올해 축제는 대면 위주 행사와 온라인판매(11번가 라이브커머스방송, 높을고창물) 병행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메인행사장과 판매장을 분리해 축제장에 찾아온 관광객이 복분자와 수박을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주차장에 판매장을 마련해 호평을 받았다.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여름철 건강을 책임지는 수박을 시중가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하고, 귀한 고창복분자를 축제기간 동안 구입할 수 있어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여기에 보이는 라디오(정오의 희망곡), 복분자 킥테일쇼, 고창가수 트로트 한마당 등 공연과 더워도 잊게 만드는 복분자와 수박캐릭터와의 시원한 물총싸움, 수박빨리 먹기대회, 장애물 3종경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흥겨운 축제 한마당으로 펼쳐졌다.

이문구 축제위원장은 “고창을 대표하는 복분자와 수박을 가지고 오감만족할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했다”며 “미흡했던 부분은 내년에 보완해 더 발전된 농산물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젊은이들의 소소한 주말장터’ 고창청년들 플리마켓(벼룩시장) 열어 대성공



고창군 청년들이 의욕적으로 진행한 플리마켓이 대성공을 거뒀다. 기획부터 홍보, 진행, 판매까지 모두 지역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활력넘치는 젊은도시 고창’의 큰 힘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창군과 고창청년벤처스(회장 한선웅)가 지난 6월 18~19일 부안면 일대에서 ‘제2회 청년벤처스 플리마켓’을 열었다.

이번 플리마켓은 청년 농업인이 직접 생산하고 청년 창업가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부스를 운영했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수박빵, 솜사탕 만들기체험, 페이스페인팅 체험부스를 열었고, 직접 만든 소품을 판매하는 공예마켓과 중고마켓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청년벤처스는 청년 창업가들과 청년농업인들이 농생명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됐다.

고창청년벤처스 한선웅 회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주민들이 찾아와줘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창 청년들의 젊음과 열정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3

2022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이팝: 소리꽃’ 개막



사단법인 고창농악보존회(회장 구재연)가 진행하는 2022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이팝:소리꽃’이 9월2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고창농악전수관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감성농악 ‘이팝:소리꽃’은 고창이 나온 최초 여류명창 진채선을 주인공으로한 국악뮤지컬이다. 소녀시절 진채선과 주변 인물들을 허구적 창작·구성하여 소릿길을 가는 진채선을 판소리, 농악, 탈춤 등을 엮어낸 전통연희극으로 풀어낸다.

구재연 고창농악보존회장은 “진채선이 곳곳이 소릿길을 나아가는 것처럼 모두가 다시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름다운 환경의 고창에서 공연을 통해 힘든 삶에 잠시나마 작은 힐링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매주 금요일 공연 외에도, 휴가철 맞이 토요일공연이 7월 16일, 7월23일, 7월30일, 8월6일, 8월13일 총 5회가 준비돼 있다.

인터파크 예매 및 전화 : (063)562-2044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의회

고창군의회 제288회 임시회 폐회, 제8대 의정활동 마무리



제28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가 6월 20일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폐회연을 개최하며 제8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이 상정되어 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기존 6월에서, 9월이나 10월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안이 처리되었으며, 임시회 폐회 후 열린 폐회연에서는 지난 임기 동안 의정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격려하고 제8대 고창군의회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폐회연은 제8대 고창군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의장 인사말, 의원 감회말씀, 재직기념패 전달, 단체사진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8년 7월에 출범한 제8대 고창군의회는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고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창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히, 의회의 존립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고창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정책의회로서의 내실을 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제9대 고창군의회 출범, 전반기 의장단 선출

				
임정호 의장	이경신 부의장	조규철 운영위원장	차남준 자치행정위원장	조민규 산업건설위원장

고창군의회는 4~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9대 전반기 고창군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며, 의장에는 임정호 의원이, 부의장에는 이경신 의원이 선출되었고, 운영위원장에는 조규철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는 차남준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조민규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제9대 전반기 의장에 당선된 임정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의회가 되는 만큼 군민의 뜻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힘쓰겠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소통과 견제를 통해 균형 잡힌 자세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취임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동시에 책임성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그동안 군민 여러분의 애정과 성원 속에 발전을 거듭해온 고창군의회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이번 제9대 고창군의회에 부름을 받으신 모든 의원님들의 뜻을 한데 모아 전반기 2년 동안 지방자치제를 개선하고 이를 실현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고창군 발전을 위한 의회 역할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한 감시자로서의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하며 군민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소통하면서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9대 고창군의회가 군민들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군의회 의장 임정호

제9대 고창군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 현황



“모두가 나섰다” 고창군 농촌일손돕기 지원 ‘구슬땀’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격이지요...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밭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밭으로 직접 찾아와 수확작업을 도와주니 정말 고맙죠.”



고창군의 모든 구성원이 밀짚모자와 팔토시로 무장하고 들녘에 나섰다. 땀별에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애썼다.

6~7월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군청 공무원과 여성단체협의회,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등 사회·기관·단체 1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고창 관내 농가 60여곳의 일손을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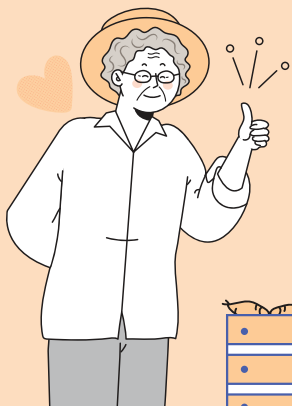
갓 들어온 신규 직원부터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은 나이 지긋한 과장들까지 함께 배 숙아주기 작업부터 고추 지주대 작업,

수박 손집기, 인삼밭 꽃 따기, 노지 고구마 식재, 복분자·블루베리수확 등 고창을 대표하는 다양한 작물의 영농작업을 거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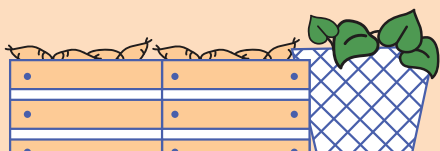
일손돕기에 참여한 봉사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건비 상승 및 일손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화합과 신뢰를 도모하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



흥덕면 주민자치위, 행복냉장고채움 고구마 심기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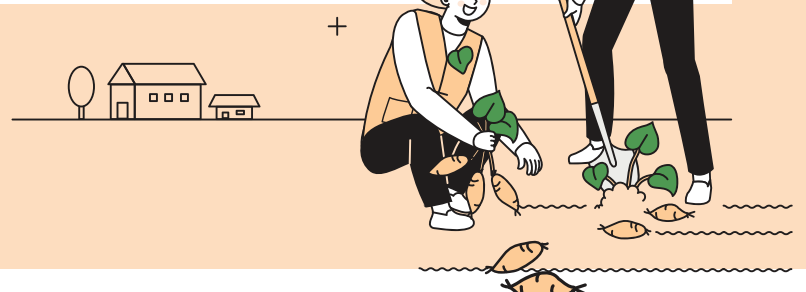


고창군 흥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0여명이 ‘흥덕면 행복냉장고’ 채움을 위한 고구마 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행복냉장고 사업은 흥덕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흥덕면 농협하나로마트 앞에 있는 냉장고에 쌀, 찹쌀, 양파, 감자, 고구마 등을 채워놓으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이 냉장고에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박기용 주민자치위원장은 “행복냉장고에 많은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고, 여러종류의 식재료가 기부돼 생활이 어려운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흥덕면 김진현 면장은 “흥덕면의 행복냉장고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성내면, 별안골 주민사랑 행복쉼터



성내면행정복지센터가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쉼터 조성지는 도로변에 위치한 황량한 유휴지였으나 주민과 행정이 울력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쉼터는 모정, 우물, 분수대 등으로 만들어졌다. 우물 안 물고기는 관내 26개 소류지와 동림지에 서식하고 있는 참붕어를 넣어 주민화합의 상징성을 부여했고, 각종 야생화 및 약용작물을 식재해 초등학생들에게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홍정묵 성내면장은 “별안골 주민사랑 행복쉼터가 주민 및 내방객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성내면을 상징하는 조형물, 이동도서관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창군 대산면, 태봉산 등산로 산뜻한 꽃길 조성

고창군 대산면이 태봉산 등산로에 메리골드 1000여본의 화분을 식재해 산뜻한 꽃길을 만들었다.

이번 메리골드 화분 식재로 등산객과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힐링의 공간 및 활기찬 분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리골드는 개화기간이 길고 내열성 또한 강해, 봄부터 가을까지 오랜 기간 색감으로 유지하여 태봉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산면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마음을 산뜻한 꽃으로 달랠 수 있길 바란다”며 “꽃길을 지나는 모두에게 화사한 행복의 기운이 전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7

| 성송면 지사협, 어려운 이웃 도배·장판 봉사활동



성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6월16일 저소득층 클린하우스 만들기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도배·장판 봉사활동을 펼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해당 이웃은 벽지가 뜯기고, 열악한 환경 탓에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위생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도배와 장판 작업을 진행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호식 민간위원장은 “바쁜 와중에도 봉사에 참여해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군이 보증하는 최고의 맛과 품질” 높을고창몰 7월의 업체소개

「케빈팜스」 미니단호박



대표 김진표

“자연에 가깝게 깨끗한
퇴비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길러낸 안전한
농산물입니다.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추운
기온이 미니단호박의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고
영양분을 과육 속에 최대한
저장시켜 포근포근한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복농산」 흑수박

“여름철 대표과일인 수박은
갈증해소와 원기회복에
좋습니다. 흑수박은 일반
수박과 달리 줄무늬가 없어
검은색을 띠며 껍질이 얇고
향과 당도가 높아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대표 박계영

「호준네농원」 복숭아(백도)



대표 송진환

“아기의 볼처럼 화사한
선홍빛을 띠고, 한입 베어 물면
달짝지근한 과즙이 입안
한가득. 살짝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한 반면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제격입니다”

「고창아침농원」 납작복숭아

“위에서 꼭 누른 듯한
납작한 모양이 특징으로 ‘
도넛복숭아’ 또는 ‘UFO
복숭아’라고도 불립니다.
납작 복숭아는 당도가
16~18브릭스로, 일반
복숭아보다 2~3브릭스
높고 달콤새콤한 향도 강해
최근 젊은 층 사이에
인기가 좋습니다”



대표 유운창

「두배로농산」 밤고구마

“고창 고구마의 위상을
높이고, 밭고 생산품을 맡긴
농가에 높은 수익을
돌려주는 보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폭신하고
부드러운 속상에 달콤함이
packed 맛!! 미네랄이 풍부한
고창 황토땅에서 자라
단맛이 최고입니다”



대표 조철진

고창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어르신 검정고시에 10명 합격



고창군가족센터(센터장 대원스님)의 지원으로 지역내 결혼이민자와 어르신(76세, 61세) 등 모두 10명(초졸 1명, 중졸 6명, 고졸 3명)이 지난 4월 치러진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센터에선 2014년부터 결혼이민자를 위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며 매년 합격생을 배출해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사진과 결혼이민자들의 노력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결혼이민자 검정고시는 모국과는 다른 교육환경을 이해할 수 있어 자녀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민자들에게 보다 나은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센터에선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검정고시를 필요로 하는 고창군민 누구나 센터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창군 가족센터장인 대원스님은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들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군보건소, 찾아가는 양·한방 순회진료

고창군 보건소가 만성질환자와 의료취약지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양·한방 이동 순회진료’에 나섰다.

진료과목은 일반 내과와 한방과로 나뉘었다. 침술과 당뇨, 혈압 체크 등 지역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시술과 각종 질환 상담에 따른 무료 투약 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은 공중보건 의사 보건지소 순회진료 연계와 순회진료 요일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고창군 보건소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만성질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치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동 순회 진료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9

2023년 1월 시행

내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500만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

대상 : 법인과 단체가 아닌 개인

한도 : 개인별 연 500만원 이내고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추가 세액공제 가능

기부처 : 주민등록상 거주자(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

기부제한 : 지역주민, 법인



약화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마련된 고향사랑기부제 출향민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선문사 도솔암

'현왕도', '독성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예고

-현왕신앙 및 독성신앙, 화승 활동내역 파악할 수 있어 귀중..전북서 첫 불화 지정



* 현왕도 _사람이 죽은 후 3일 만에 망자를 심판하는 현왕과 그의 권속을 그린 그림

고창군 선문사 도솔암 극락보전 내 봉안된 '현왕도(現王圖)'와 '독성도(獨聖圖)' 2점이 불교사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 됐다. 2점 모두 불화의 조성 기록인 화기(畵記)가 온전히 남아 있어 제작 연대(1896년/丙申), 봉안처(도솔암), 제작 화승(畵僧) 등을 명확히 알 수 있고 당시 불사(佛事)에 관련한 연화질의 명단과 시주자의 이름까지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현왕도'는 현왕을 중심으로 녹사(錄事)와 판관(判官), 사자(使者), 동자(童子) 등의 권속들이 명부에 글을 적거나 책을 들고 있다. 심판장의 긴박감이 느껴지며 상호 교감하는 인물들의 자세가 돋보인다.

'독성도'는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소나무가 넓게 늘어놓은 모습 및 흰 줄기의 폭포수, 파초와 꽃 등을 배경으로 주인공인 독성과 그를 시좌(侍坐)하는 동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소나무 숲에서 파도소리 들으며 힐링” 대죽도 해양치유캠프 ‘대만족’

고창군 람사르갯벌센터가 지난 6월4~6일과 5월21~22일 두차례에 걸쳐 '대죽도 해양치유캠프'를 운영에 눈길을 끌었다.

'대죽도 해양치유캠프'는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 내 대죽도에서 해양치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고창군의 갯벌 자원과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해양치유캠프는 갯벌체험, 해송숲 산림욕·요가 명상, 별밤 동화구연·음악회, 별밤의 해루질 등으로 알차게 꾸러졌다.

특히 해송숲에서의 산림욕은 무인도의 갯바위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해안가에서 진행된 고창군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화제를 모았다.



전북현대모터스FC,

고창초 유소년축구팀 찾아 선진축구체험 재능기부



전북현대모터스FC가 지난 6월9일 한교원(MF), 박진성(DF), 김준홍(GK) 선수와 함께 고창에서 특별한 재능기부 행사를 열었다. 이번 재능기부 행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고창군과 전북현대모터스FC가 공동으로 추진해 성사됐다. 고창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진 재능기부 행사는 고창초 유소년축구팀에게 선진축구 프로그램 체험기회 물론, 아이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다. 특히 직접 드리블, 슈팅 기술을 가르쳐 주는 시간에는 프로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에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다. 전북현대모터스FC는 유니폼과 스포츠음료 50박스를 증정하기도 했다.

양준식 전북현대모터스FC 홍보팀장은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위축된 유·청소년에게 실제 프로선수를 만나 체계적인 축구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월 고창의 인물 김정회(1903~1970)



호는 보정(普亭) 또는 연연당(淵淵堂)이다. 광무(光武) 6년 고창 도산에서 출생하였으며, 종조(宗祖) 항재 김순목에게 경사를 배우고, 명륜전문학원에서 실학을 익혔으며 해강 김규진에게 서화(書畵)를 연마하여 시서화삼절(詩書畵三絶)로 일컬었다.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경선재(敬先齋), 양지재(養志齋)를 세우고 또 회천정사(晦泉精舍)를 지었으며, 후생 교육을 사명으로 만수당(晩睡堂)에 서숙(書塾)을 열어 강학하면서 당대의 석학인 고당 김구태, 호당 김문옥, 석농 이동범 등과 시문으로 교유했다. 혜훈(惠恤)로도 알려져 흥년에 진흥하여 송덕비(頌德碑)가 섰다. 1970년 68세로 돌아가시니 모양문화인장(牟陽文化人葬)으로 장례를 모셨으며 경모비(景慕碑)가 마을 앞에 섰다. 저서로 『연연당문고(淵淵堂文稿)』10권1책이 전한다.

고창군 일자리 지원 센터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통해 구직자와 구인업체 연결,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연번	업체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조건	마감일	근무지
1	사임당푸드(영)	1	마케팅사무원 (홈페이지관리등)	월급/ 200만원 주5일근무(09:00~18:00)	채용시	고창읍
2	연경전자(주)	2	생산직직원모집 (주.야간2교대)	시급/ 9,160원 주간(08:00~19:50) 야간(19:50~익일08:00) (주.야간잔업2시간포함)	채용시	고수면
3	연경전자(주)	1	품질팀장 (품질이슈관련대응. 인증심사관련업무총괄)	월급/ 250만원 주5일근무(08:00~18:00) 경력5년이상인자	채용시	고수면
4	농업회사법인 (주)이앤지푸드	5	생산직 (단순포장업무)	시급/ 9,160원 주5일근무(08:30~17:30) (장애인만지원가능)	채용시	부안면
5	농업회사법인 (주)이앤지푸드	1	공무책임자 (전기.전자외 관류보일러정비 및 유지관리등)	연봉/ 3,000~5,000만원 주5일근무(08:00~18:00) (경력5년이상. 2급소방안전관리자. 열처리기능사자격증우대)	채용시	부안면
6	(주)내추럴코어	1	관리사무원 (엑셀가능한분)	월급/ 193만원 주5일근무(08:30~18:00)	채용시	부안면
7	대경스틸(주)	1	경리사무원 (엑셀가능자)	연봉/ 3,300만원 주6일근무(08:00~18:00) (격주토요일근무)	채용시	홍덕면
8	농업회사법인 SRC청보리(주)	1	생산직 (곡물가공및 기계조작원)	월급/ 220만원 주5일근무(09:00~18:00)	채용시	홍덕면
9	국순당 고창명주(주)	1	생산관리직 (전통주생산관리업무)	월급/ 280만원(면접후조정가) 주5일근무(09:00~18:00) (생산관리경력자/기숙사제공/ 통근차량이용가)	채용시	부안면
10	농업회사법인 (주)빛뜨락	1	생산직 (쭉차.진액파우치. 환등)	시급/ 9,160원 주5일근무(09:00~18:00) 청년층희망	채용시	상하면

구인, 구직자 개인별 상담 및 DB 구축/취업 알선에 따른 구인처 정보 제공/
일자리 상담_상생경제과 일자리창업팀(063-560-2366)

사서추천, 이달의 도서



정지는 아름답다



최호남 지음 /
시와세계 / 2019
성호 : 811.7-최95ㅈ

고창 출신 최호남 시인의 시집『정지는 아름답다』에는 <잊혀진, 도솔암>, <고창 행>, <아산천> 등 시인의 기록이 나타난다. 시인의 일부인 고창이 담겨있는 시집으로, 담담하면서도 차분한 시어들 사이로 시인의 감성과 체험을 읽을 수 있다. 일년의 나머지 반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으려는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조용한 글과 함께 시작하시라고 이 시집을 추천한다.

저자소개

고창출생. '시와세계'로 등단, 시집 '당신얼굴', '정지는 아름답다'

“고창-부안 10분내 이동가능” 노을대교 건설 본격화

노을대교 건설이 이르면 올해 연말 시작될 전망이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전북 고창~부안 간 해상교량인 노을대교를 착공하기 위해 조달청에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발주를 요청했다. 노을대교는 전국 해안을 일주하는 국도 77호선을 완전히 연결하는 다리다.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와 고창군 해리면 동호항 까지 연결하는 8.86km 규모로 총 3870억원이 투입돼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노을대교가 완공되면 고창~부안 간 통행 시간이 80분에서 10여분으로 단축되며 새만금 지구와 함께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서남해 해양관광 벨트가 구축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노을대교는 충남 태안반도~새만금~부안~고창~전남 목포를 잇는 서해안 해안도로의 핵심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변의 뛰어난 관광자원들과 연계하면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자인·맛·향까지 수박 그 자체! 올 여름 간식 책임질 ‘고창수박빵’이 떴다



‘대한민국 수박의 성지’ 고창수박으로 만든 캐릭터빵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수박빵’은 고창수박과 고창복분자를 원료로 향긋한 수박향과 달콤하면서도 촉촉한 앙금이 맛의 조화를 이룬다. 검은깨를 활용해 수박씨를 표현하며 먹는 재미와 맛의 고소함을 더했다. 또 국내 유명작가와 디자이너가 협업해 포장 디자인까지 심혈을 기울였다.

고창수박빵은 커피나 우유 등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이 좋고, 얼려 먹어도 젤라또와 같은 느낌을 맛볼 수 있다. 고창수박빵 임득선 대표는 “지속적으로 청정한 고창의 농산물을 활용해 MZ세대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캐릭터 제품으로 전통주, 아이스크림, 음료, 카라멜 초콜릿 등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고창수박빵 구입처

카카오톡선물하기, 마켓컬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고창군 농특산품판매장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장